

## 傍觀者가 되지 말자

團體나 個人的 興亡盛衰는 周圍與件 變化에 따른 對應態勢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過去부터 現在까지의 業務를 科學的으로 分析하여 잘못된 것은 改善하고 周邊狀況의 變化를 收斂하여 現實에 反映하고, 아울러 到來할 未來의 方向을 正確히 豫見하여 準備하는 態勢가 그들의 死活을 左右한다.

이러한 狀況에서 最近 우리 業務와 관련된 周圍의 많은 變化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能動的으로 對處하여야겠다는 뜻으로 다음의 두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먼저, 現在 防災의 根幹이라고 할 수 있는 消防法 關係規則이 政府 該當部署에 의해 改正作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그 內容이 發表될 豫定이라 한다. 이제까지 많은 變遷이 있었고 그때마다 論難이 일었지만, 여기서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規定의 一部 옳고 그름의 有無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國家와 國民에게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法改正作業에 防災分野의 專門家로 自處하는 우리가 얼마나 積極的으로 참여 또는 관심을 기울였는지 反省해 볼 必要性에 대해서 이다. 즉, 改正案이 나와서 많은 이에게 檢討할 기회가 주어져 왔으나 小數의 사람을 除外한 大多數가 傍觀하였음이 솔직한 얘기가 아닐까? 또한 檢討를 거쳐 나온 修正案이 意圖하는 바대로 反映될 수 있도록 盡力を 했었는지, 그리고 그 修正案의 妥當性에 대해서 民願의 餘地도 검토해 보았는지?... 再考해보아야 한다.

國民의 財産과 人命에 관계되는 重大한 凡國家的인 일에 우리 업무의 바쁨을 이유로 행여 소홀히 한다면 近視眼的이고 일의 先後를 그르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關心不足이 國家發展은 물론 國民에게 다소라도 負的要素를 갖게 하는 法定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本然의 업무가 防災임을 位置하고라도 적어도 防災專門家로서의 自負를 그 누구에게 내세울 수 있겠는가? 만약 위의 質問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너나없이 이 時點부터라도 國家防災에 積極 참여한다는 새 次元으로 再整備함이 마땅하리라는 것이 그 한 가지 提言이다.

또 한 가지는 建物의 大型化 趨勢와 産業의 發達에 따른 尖端産業 등 새로운 技術工程의 出現으로 매년 약 10%의 點檢物件이 增加하여 왔고 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對應할 必要人力은 오히려 줄어들어왔다. 여기에서 派生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超大型 建物의 특징은 一定時間이 지나면 勤務者 대부분이 退勤하여 無人化하고, 人間에 의한 全建物의 管理로부터 最新技術로 시스템화한 電子·機械設備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設備의 運營, 點檢技術 등의 現實水準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火災時 被害에서 비롯되는 社會的 惡影響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은 너무도 自明하다. 게다가 새로운 工程의 電子産業, 遺傳子工學系統의 産業은 過去 火災經驗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技術이기 때문에 防火對策의 樹立도 어렵고, 또 이러한 物件에 火災가 發生하면 社會的으로 막대한 被害는 물론, 國家 尖端産業에 致命的인 損傷을 입힐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解決을 위해서는 實務職員의 增員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實質的인 海外研修를 통한 專門家 養成 등 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高度의 教育實施’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임무가 火災豫防에 있는 한 國家·社會的으로 문제가 큰 大型火災는 막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 量에 치우친 實績爲主의 業務執行은 止揚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별 탈없이 지내왔다는 劃一的인 姿勢에서 脫皮함과 아울러 他的 잘못을 批判하기보다 우리의 앞날과 國家防災를 위해 各者 모두가 當面問題의 解決策을 摸索하려는 強力한 의지와 努力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要請된다.

결코 傍觀者가 되어서는 안되겠다.\*